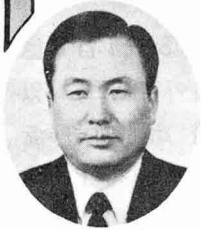


# 産業保健事業과 勤勞者福祉



勤勞福祉公社 社長  
韓 眞 熙

우리나라는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政府의 強力한 經濟開發政策의 推進과 온 국민의 피땀어린 努力의 成果로 오늘날 産業은 各部門에서 놀라운 成長과 發展을 이룩했다.

勞働部에 依하면 84년 4월말 현재 全國의 5人 以上 雇傭 事業場數만도 萬餘個所, 이곳에 從事하는 勤勞者數는 무려 4百萬餘名에 達하고 있다.

이와같이 産業과 經濟의 規模가 急激히 膨창됨에 따라 勤勞者數도 每年 增加하는 한편, 社會 全般的인 意識水準의 向上으로 勤勞者의 福祉欲求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불과 수년前까지만 해도 使用者의 立場에서 본 勤勞者는 單純히 生産主體로서 企業의 目的達成을 위한 手段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 勤勞者는 生産活動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要諦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福祉增進은 企業의 生産性 向上과 直結되며 勞使協調의 根幹이 된다는 認識으로 變化하고 있는 趨勢이다.

政府에서도 國政指標 가운데 福祉社會의 建設을 標榜하고 특히 勤勞者 福祉增進을 위해 制度改善, 施設擴充 等 格別한 配慮를 아끼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81年 産業安全保健法을 制定하여 事業場의 機械施設과 有害物質에 대한 對策을 強化한 바 있으며 災害豫防을 위한 積極的인 技術開發과 支援으로 事業場에 있어서 安全保健이 定着되도록 推進中에 있다.

또한 84年末에는 全國의 7萬6千餘 鑛山勤勞者를 위한 塵肺豫防과 塵肺勤勞者 保護에 關한 法律을 制定公布함으로써 鑛山勤勞者들의 保健向上에 劃期的 轉機를 마련했다.

한편 77년에 創設된 勤勞福祉公社에 持續的인 投資와 支援으로 事業領域과 施設을 대폭 擴充케 함으로써 傘下에 6個의 産災勤勞者 專擔 綜合病院과 5個의 專門福祉施設을 全國에 걸쳐 設置케 하여 産災患者의 診療와 再活, 訓練, 休養, 職業輔導, 保護雇傭 等 多樣한 福祉事業을 展開하도록 했으며, 公社가 名實相符한 勤勞者福祉 專擔機關으로서의 機能을 폭넓게 遂行할 수 있게 함으로써 産災患者의 健康管理은 물론 社會復歸에 크게 寄與케 하고 있다.

勤勞者 福祉增進을 위한 事業領域은 매우 廣範圍하지만 큰 比重을 차지하는 部門은 우선 作業環境과 作業條件의 改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産業保健事業에 대하여 政府次元 또는 企業次元에서 至大한 關心을 갖고 果敢한 投資를 先行시켜야 할 줄로 안다.

勤勞者가 事業場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一定한 場所에서 一定期間동안 自身에게 負荷된 勞動力을 最大限 提供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勞動力에는 生産性과 關聯한 限界性이 있기 때문에 無理하게 長時間 作業을 繼續한다던가, 特殊有害物質이나 危險物質이 存在하는 作業環境 下에서, 또는 安全施設이 未洽한 作業場에서 일할 경우 勤勞者에게는 疲勞, 職業性疾患 등 各種 災害因子에서 오는 負傷이 發生하기 쉽다.

勤勞者가 自身の 能力을 最大限 發揮할 수 있게끔 最適의 作業環境을 造成해 주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諸般 障害要因을 徹底히 찾아내서 이를 改善・除去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有害因子나 有害與件에 暴露되는 일이 없도록 安全施設을 갖추고, 事前 充分한 教育을 통해 各種 事故豫防에 勤勞者 스스로가 關心과 注意力을 갖게하는 한편, 勤勞者 個個人の 適性에 맞는 職種과 作業環境 下에서 일하도록 適正配置함으로써 勤勞者들이 精神的으로나 肉體的으로 安定感을 갖도록 最大限의 努力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有害作業場 從事 勤勞者를 위해서는 一貫性있는 醫療體系를 갖추도록 함과 同時에 作業環境測定機器의 設備는 물론 勤勞者 健康診斷을 定期的으로 實施하여 疾病 有所見者 等を 早期에 發見, 適切한 措置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近來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多少 때늦은 감은 없지않아 있으나 名界各層에서 産業保健에 關한 認識을 새로이 하고 많은 研究와 對策을 활발히 세우고 있는 것은 매우 鼓舞的인 現象이다.

産業이 高度化되고 專門化됨에 따라 이에 대한 逆機能으로 産業災害率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發展過程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副作用이라고도 보기 쉬우나 産業災害는 곧

貴重한 人命과 財産의 損失을 가져오고 社會와 國家發展에 많은 支障을 招來하는 社會的 問題임을 重視해야 할 것이다.

勞働部에 依하면 84年 한해동안에 우리나라에서 發生한 産災勤勞者數는 15萬7千餘名으로 이중 1%에 該當하는 1千6百餘名이 生命을 잃었으며, 職業性疾患 有病者도 6千5百餘名에 이르는 것으로 集計되고 있다.

이와같은 人的損失 外에도 5千1百8億餘원이라고 하는 經濟的 損失이 뛰파르고 있어 이와같은 記錄은 先進國에 比해 매우 높은 水準이며, 애써 쌓아올린 功든 塔이 不意의 災害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結果를 隨伴하게 되는 것이다.

經濟가 持續的인 成長과 發展을 이룩하는데 있어 重要한 課題中的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勞動力을 效率的으로 活用・保存 하는데 있음을 想起해 볼 때, 産業保健事業을 통한 勤勞者 福祉增進의 實現이야말로 産業平和는 물론 國家發展에 큰 寄與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企業倫理를 내세우면서도 勤勞者 福祉問題에 대해서는 前近代的 思考를 脫皮하지 못하여 産業保健에 關한 安全施設이나 設備投資 等に 인식한다면 그 企業은 成長發展은 고사하고 結局에는 破局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

勤勞者의 福祉增進은 政府나 一個 團體의 힘만으로는 達成할 수 없는 것이고 企業에 있어서도 企業의 社會性을 깊이 認識하여 高度産業社會에서 要求되는 福祉收容態勢를 갖추어 나감에 있어 産業保健에 關한 보다 積極的인 關心과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